37 보이지 않는 노력도 언제가는 보상받는다는 거짓말

• 힘든 고난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언젠가는 보상을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호다. 대게 세상은 공정해야 하며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이다. 이러한 세계관을 사회 심리학에서는 '공정한 세상 가설'이라고 부른다.

•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한 세상 가설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의식 중에 방출하는 '노력 원리주의'다.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천진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내세우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'1만 시간의 법칙'이다.

• 실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는 그 대상 악기나 종목, 또는 과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연습이 기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기술이나 능력 분야에 따라 다르며 기능 습득에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다.

• 노력은 보상받는다는 주장에는 일종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게 들린다. 하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의미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려울지도 모른다.

• '공정한 세상 가설' 이야기로 돌아가보자. 공정한 세상 가설, 즉 노력은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사고는 실증 연구에서 부정되고 있으며 노력의 누적량과 성과의 한계는 해당 경기나 종목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혀졌다. 다시 말해 이 사고에 사로잡혔다간 승산 없는 일에 쓸데없이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.

• 세상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. 그러한 세상에서 한층 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싸워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, 의무다. 남 모르는 노력이 언젠가는 보상받는다는 사고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.